

천당과 지옥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한 섬한 차림의 40대 남자가 진료실에 들어섰다.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복원할 수 있
니까?”

“아기를 더 낳으려고요?”

“그게 아니고 3년 전 정관 수술을 받은 후 성
기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서요.”

정관수술은 정자가 나오는 통로만 막아주는 것
이기 때문에 고환의 내분비 기능은 정상적으로 움
직인다. 따라서 성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대가 되면 성욕 감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능적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요.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본 후 결론
을 얻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원 수술을 간청하는 그를 달래 우선 성 기능
검사부터 시행했다. 성인병과 기질적 장애를 체크
하는 제반 검사를 마친 결과 시정각 자극 검사에
서 불안정한 형태를 보였고 혈액 검사에선 콜레스
테롤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나 간염·신장염 등의 증세는 없었다.

“복원 수술을 해도 성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된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막무가내였다.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매우 좋았고, 한 달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만면에 웃음이 번져 있었다.



“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발기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는 연방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병이 호전된 것을 고마워했다.

어찌 보면 심리적 기대 효과로 나온 병일지도 모르는데, 환자가 그렇게 좋아하니 정말 다행스러웠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특히 성격이 예민한 남성은 정관 수술 후 성기능이 약해졌다고 호소하는데, 주로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긴 정관 수술을 하면 정자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채 안에서 자체 분해되어 흡수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를 두고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때로는 무리일지도 모른다.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겪은 적도 있다.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관 수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로부터 2주 후,

“아이고, 선생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수술 후 그것이 어찌나 잘 서던지.”

간단히 정관 수술만 해주었는데 이들은 성욕은 물론 발기까지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연치고는 너무도 다른 상황에 의의한 생각마저 든다. 똑같은 정관 수술을 받고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천당과 지옥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던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더니... [7]

국 내외로 정보

5~10세 어린이에도 중풍 발생

50대 이상 노인들에게 주로 발병하던 중풍(뇌졸중)이 최근에는 5~10세의 어린이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 중풍 발병률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중풍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소아중풍의 초기증상, 즉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증상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대의 서울중앙병원 신경외과 나영신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어린이 중풍(뇌혈

관질환)환자를 지난 '94년 5명 발견한 데 이어 '95년 7명, '96년에는 무려 18명을 발견했다”며 소아 중풍환자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교수는 이들 어린이 중풍환자들에게 ‘뇌혈관 문합술’을 시행해 90% 이상의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밝혔다.

나교수에 따르면 어린이 중풍의 발생원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극동지역에서는 모야모야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선천성 심장병의 합병증, 뇌염, 뇌막염 등 중추신경계 감염에 의한 합병증, 뇌혈관기형 등이 꼽히고 있다.

어린이 중풍환자들의 임상증상은 겉으로는 성인중풍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인중풍이 출혈성 중풍과 허혈성 중풍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소아중풍은 대부분이 허혈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 증상은 먼저 울고난 뒤에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저려오는 증상을 들 수 있으며 때문에 이같은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소아중풍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나교수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심한 두통과 함께 팔다리 마비증상을 동반하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고난 뒤에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소아중풍의 주된 증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나교수는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이는 이같은 마비증세는 반드시 일시적으로 나타난 뒤 곧 회복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간과하기 쉽다”며 “무엇보다 조기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만큼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중풍증상은 임상외적으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동맥경화현상과 달리 뇌혈관 자체가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가늘어지는 이른바 모야모야병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뇌혈관 촬영, 뇌혈류 촬영,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으로 확진이 가능하다. [7]